

유토피아와 가능 세계에 대한 인문학적 상상력*

정익순

주제분류 문학이론, 양상논리, 형이상학

주요어 양상논리, 사건, 일탈, 상상력, 가능 세계, 유토피아, 리얼리즘

요약문

플라톤이 상상하고 토머스 모어가 소설로 실천에 옮긴 유토피아는 세상의 어느 곳에도 없는 가공의 장소이다. 유토피아 소설 속에는 독자를 알려지지 않은 세계로 인도하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방문한 여행자는 가능 세계를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발생적 기원과 개인주의의 측면에서 소설은 개인의 문제를 탐색한다. 이 경우 등장인물의 내적인 갈등을 통해 주인공이 사회의 관습에서 일탈되는 전형을 보이기 때문에 소설의 리얼리즘으로 정의된다. 리얼리즘은 사회에서 추방되거나 고립된 개인의 행동과 사고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가진다. 그러므로 유토피아와 소설의 리얼리즘은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세상에서 일탈된 인간의 고립과 가능 세계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철학에서는 가능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양상논리가 사용된다. 양상논리는 기존의 참과 거짓이라는 이치 논리에 기반 한 명제논리에 필연성과 가능성을 추가하여 다치 논리로 가능 세계를 설명한다. 가능 세계를 가능 또는 불가능의 명제로 이해하면 필연적 진리와 우연적 진리를 구분하는 논리가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문학에서는 가능 세계의 개념을 다양한 이론으로 응용하여 인접 학문에 대한 연구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학에서 다루는 가능 세계는 허구의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에서 논하는 가능 세계에 대한 논리가 무시될 수 있다. 철학적 논리로 볼 때 가능 세계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가능 세계는 부재와 침묵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다양한 문학이론을 생성한다. 본질적으로 철학과 문학에서 논하는 가능 세계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철학이 가능 세계를 이론적 틀로 보는 반면 문학은 가능 세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철학적 논리의 영역에서는 가능 세계가 배제되지만 문학은 가능 세계를 비실제적인 세상으로 응용한다. 그러나 유토피아 사상이 인류 역사의 토대에 뿌리를 내린 것이라 해도 유토피아는 주인공의 일탈과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능한 세계가 만들어진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과제번호: KRF-2007-321-A00218).

1. 들어가는 말

18세기는 영국 소설이 새로운 문학형식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기이다. 당시의 소설가들이 쓴 소설들은 문학의 한 유파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설 작품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 흔적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소설 연구가들은 소설가들의 천재성과 우연성을 논하는 측면과 소설의 발생에 대한 시대적 조건과 새로운 형식에 대한 문학적 조건을 18세기 이전의 허구적인 이야기와 구별하여왔다. 이언 와트(Ian Watt)가 *The Rise of the Novel*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소설이 18세기 이전의 허구적인 이야기와 구별되는 것은 소설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진실이 개인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토대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로 소설형식을 특징짓는 논의가 요구되었다.¹⁾ 하지만 리얼리즘은 소설의 발생 당시 인간이 경험하는 지식과 사실을 추상적이면서 심미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허구적인 가공의 세계인 유토피아와 개인의 경험이 대립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²⁾

1) 이언 와트는 *The Rise of the Novel* 제1장에서 과거의 문학적 가치들과 소설의 두드러진 이야기 기법과 영속적인 문학적 가치들, 소설의 기법에는 몇 가지 모순이 존재한다고 보면서 소설에서 왜 역사적이며 문학적인 비평이 18세기에 부족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은 철학과 문학의 관심이 리얼리즘과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서양 문명의 거대한 변화와 달리 소설에서 다루는 특수한 개인이나 가상의 세계가 총체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철학적 리얼리즘과 소설의 이야기가 격리되었다고 본다.

2) 이러한 논란은 디포(Defoe)의 *Robinson Crusoe*를 찰스 길던(Gildon)이 *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s of Mr. D-Def*에서 거짓으로 꾸며진 이야기라며 로빈슨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E. M. 포스터(Forster)는 *Aspects of the Novel*에서 로빈슨의 이야기를 보이스카웃 매뉴얼이라고 비난한다. 반대로 루소는 *mile*에서 에밀이 반듯이 읽어야 할 첫 번째 도서목록이라고 극찬을 한다. 현대에 와서 M. 투르니에(Tournier)는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에서 로벵송이 디포의 로빈슨의 행동과 전혀 다르게 소설의 내용을 바꾸어 가능 세계에서의 일탈의 문제를 철학적 인식의 문제와 연관시킨다. 그리고 J. M. 콧시(Coetzee)는 *Foe*에서 수잔이란 여자를 섬에 난파시켜 로빈슨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도록 하여 18세기에 유행한 가공의 섬의 이야기나 유토피아적인 세상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변형하는 계보를 이어온다.

소설은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을 제시해야 하지만 소설에서의 리얼리즘은 삶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윤리적,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의해 제시되는 인간의 삶보다 오히려 그럴듯하거나 우연한 양상들,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과 지각 그리고 추상적이고 과학적인 실체를 분석하는 내용이 소설 속에 들어있어야만 했다. 문학작품으로서 18세기 소설은 형식과 내용을 통해 인간의 삶을 모방하고 현실의 문제와 일치시키기 때문에 이상적인 세계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의미심장한 부분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본질상 여러 가지 인식론의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소설의 리얼리즘은 철학적인 판단과 분석 그리고 비평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소설의 발생 당시 소설가들은 보편적인 것보다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반전통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전달해야만 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소설의 주인공은 특수한 것을 경험하는 허구적 인물로 묘사되었고 소설은 이상적인 인간과 더불어 문학적 가능 세계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리의 추구는 개인적인 사건에 집착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사상과 결별하면서 문학에서 다루는 개인의 경험이 철학적 문제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소설은 인간의 경험을 구성한다는 독창적인 전제를 가진다. 하지만 문학에는 그것이 가지는 독특한 양상인 성격묘사와 배경이 있으며 18세기 소설 속에서 만들어진 가능 세계와 개인의 문제는 이상적인 세계에서의 고립과 일탈의 문제로 발전되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소설이 독특하다는 것은 동시대의 사건을 허구적인 이야기로 만들거나 부분적인 사건을 소설의 소재로 다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18세기 소설가의 창조적 상상력은 개인의 양식과 시대의 중요성을 문학적 출구로 이용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소설은 불완전한 세상 혹은 가능 세계 그리고 인간의 이상적인 삶을 다루기 때문에 소설 속에 존재하는 침묵과 부재의 문제는 다른 작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형되거나 순환되

었다.³⁾ 이러한 사실은 초기 영국 소설의 허구적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전통과 단절하는 측면과 주인공이 사회에서 추방되거나 섬에 난파되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이 소설 속에 세부적으로 묘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 18세기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유토피아는 유형화된 인물이 아니라 특수한 사람으로 혹은 자신의 주체성을 의식하는 인물로서 탐구의 대상이 되었고 유토피아는 가능 세계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침묵과 부재의 문제를 이론화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소설은 특징적으로 근대사상의 방향을 새롭게 반영하고 이상적인 사회 속의 추상적이고 총체적인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였다. 결국 18세기 소설은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긴 하지만 소설의 발생 시기에는 있을 법한 가능한 세상과 사건의 모순을 텍스트에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실체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거나 물리적인 세상의 환경과 인물의 움직임만을 소설에 기술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리얼리즘의 측면에서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이해하는가와 문학과 철학에서 가능 세계를 이해하는 차이점과 비교되는 점 그리고 유토피아에서의 일탈의 문제를 인문학적 상상력에 토대를 두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3) P, 마쉬레(Macherey)는 *A Theory of Literary Production*에서 소설 작가는 이데올로기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소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변화하여 유사한 작품이 생성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소설이 가진 침묵과 부재의 문제로 소설의 신화적 의미가 변형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마쉬레의 입장을 T. 이글튼(Eagleton)은 『문학비평』에서 작가를 본질적으로 어떤 주어진 자료로 작업하며 새로운 산물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로 평가한다. 그러므로 작가는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자료에서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노동자처럼 자신이 작업할 재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형식들, 가치들, 신화들, 상징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H. 블룸(Bloom)은 *The Anxiety of Influence*에서 이전의 작가를 잘못이해하거나 필연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창조적인 교정의 행위를 하는 수정주의(revisionism)의 측면에서 클리나멘(clinamen)이라는 용어로 이런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2. 소설에서의 리얼리즘과 사건

소설의 발생을 개인주의와 관련하여 탐색하는 이유는 등장인물이 자기 중심적이며 당대의 관습에서 이탈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등장인물은 당시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아니라 내적으로 독립된 인간으로 묘사된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만 개인의 행동과 사고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가진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리얼리즘과 연결시키면 개인으로서 인간이 설명된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은 개인적인 성향을 보여주면서 변화를 겪지만 실제 인간이 경험하는 개별적인 현상들과 객관적인 삶은 다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설의 표면구조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소설의 표면구조는 이데올로기와 허구의 이야기로 균열이 생기며 소설가들은 인간의 의식이 균열되는 것을 소설로 형상화한다.

리얼리즘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사건으로 해석하는 문제와도 연관된다. 사건은 객관적 현실을 문학적 상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학에 재현하는 문제이다. 작가들은 총체적으로 현실을 묘사하지만 사건, 공간 그리고 시간의 문제는 작품의 전개상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작품을 형상화 할 때 작가의 의식에 따라 표면구조가 결정되고 그것에 의해 주인공의 의식이 반영된다. 그러나 소설의 표면구조는 비본질적이며 가상적인 것이다. 다만 표면구조는 실제사건의 본질보다 쉽게 변형된다. 루카치는 『문제는 리얼리즘이다』에서 표면구조와 사건에 변증법적인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계기를 전체적인 연관관계로 인식하고 그것을 사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유일한 현실이라고 확대시키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말하자면 현상과 본질의 올바른 변증법적 통일성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즉 남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표면구조의 묘사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묘사는

밖에서 주석을 붙이는 일 없이 형상화를 통해 묘사된 생의 단면 속에서 본질과 현상의 연관관계를 보여준다. 우리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⁴⁾

루카치의 지적처럼 소설 주인공의 의식 속에는 균열상태, 불연속성, 단절, 그리고 공간과 시간이 형상화되어 있다. 하지만 독자는 왜곡된 형상을 현실과 비교함으로써 형상의 본질, 원인, 매개과정을 구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한다. 만약 그러한 의식 상태를 현실과 동일시한다면 독자는 왜곡된 형상을 사건의 진실로 이해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독자는 주인공의 의식이 작가의 의식을 토대로 형상화된다는 것을 상상한다는 점이다.

리얼리즘에서는 작가의 상상을 직접적인 의식 상태로 인식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사건의 균열 상태로 설명한다.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균열상태를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사건을 현실로 제시한다. 작가의 체험은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표현방식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예술적 표현은 추상적이고 단조롭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미학적 측면이나 예술적 추상성에 대한 모순의 문제를 설명하지 않는다. 사건은 추상적인 관계를 통해 내적인 구조로 만들어진다. 소설의 이러한 구조는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추상적으로 사유해야 되는 변증법적 방법이 요구된다. 결국 리얼리즘에서의 변증법은 추상적인 사유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현실에서 일탈되는지를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⁵⁾

4) 루카치(1985), 79쪽.

5) 변증법은 논쟁을 통해 본래의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변증법은 소설의 추상적인 사유나 심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모순을 드러내는가를 확인하는 진행과정이다. 변증법이 문학연구에 적용되면 가능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나 사건이 어떻게 세상의 역사적 현실과 모순 되는지를 보여준다. 루카치의 변증법은 예술이 현실을 반영하는 특수한 방식에서 개인의 문제를 소설에 유지하면서 통일성, 역동성의 이미지를 전달하여 인식 이상의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의 문제를 말한다.

루카치는 『문제는 리얼리즘이다』에서 ‘문학과 예술은 추상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⁶⁾고 말한다. 추상에는 방향이나 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방향이나 결로 객관적인 현실에 도달하고 어떤 매개물을 통해 직접 지각할 수 없는 현실이 체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의 상상력으로 생성된 가상의 세계는 인식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이러한 가상의 세계 속에 삶의 구조가 제시되고 표면구조 속에는 사건의 본질이 자리하게 된다. 이것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건의 특징이며 현상의 변증법이다. 따라서 문학의 리얼리즘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삶의 모순과 사회를 규정하는 요인들로 인해 그 깊이를 가진다.

리얼리즘의 추상에 대한 문제와 달리 사건들이 현실로부터 일탈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사건이 일탈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과정을 의식적으로 삭제하거나 사건이 균열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독자는 균열 상태로 반영된 무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표면구조만을 체험한다. 일탈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의식에 작용하는 내적 운동이며 정지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일탈은 주관적인 요인에 의존하며 이데올로기적인 동기를 가진다.⁷⁾ 일탈은 사건으로 형상화되고 침묵과 부재로 텍스트에 현존한다. 더욱이 일탈은 표면구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태아의 상태로 존재하며 의식으로 규정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는 일탈로 인해 무엇인가를 기대한다.

일탈은 사건을 다시 설명해 준다. 사건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이 생기면 의미가 생성되는데 의미 속에는 선형적 조건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사건이 드러나는 표면에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미를 어떤 명제 속의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사건과 의미와의 관계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사건이 조직되면 의미는 논리적 가능성 혹은 잠재성으로 존재한다.

6) 루카치(1985), 85쪽.

7) 마쉬레(1980), 240쪽.

들뢰즈(Gilles Deleuze)는 *The Logic of Sense*에서 사건과 의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사건 안에 나의 불행이 그러나 또한 그 불행을 말려버리는 의지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사건을 그 정점 그 분절선 위에서 효과 있게 만드는 빛남과 파열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정점 발생 또는 무구한 개념화의 효과이다. 사건의 파열, 빛남은 바로 의미이다. 사건은 발생하는 것이지 사고가 아니다. 사건은 발생하면서 우리에게 신호하고 우리를 기다리면서 순수 표현된 것이다. 사건은 이해되어야 하는 것, 원해져야 하는 것, 발생하는 것 안에서 표상되어야 하는 것이다.⁸⁾

사건은 조직화되기 이전에 잠재적 가능 조건으로 성립되어 있다. 표면구조에 드러나는 사건과 사건 자체에 의한 결과는 특이성을 생성한다. 사건이 특이성을 갖는 것은 사건으로 인해 생성된 변화나 일탈을 누군가가 사유하기 때문이다. 사건으로 의미를 다시 상상하면, 작품은 변형되거나 다른 작품의 소재가 된다. 작가들은 물질적, 정신적, 자연적,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무엇인가를 소설 속에 재현하려 한다. 소설 속에서 사건은 우연히 발생되지만 사건은 물리적 표면효과에 의해 변화된다. 들뢰즈가 *The Logic of Sense*에서 다른 사건이 계열화됨으로써 의미가 생성되는 예들을 제시하고 있듯이, 이정우는 『시물라크르의 시대』에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사건이란 솟아오르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던 물리적 변화가 우리 눈앞에 문화의 세계로 솟아오르는 것. 이미 존재하는 문화의 장 속에서 솟아오는 것. 사건이 솟아오를 때는 무한히 계열화되고 언어화되고 코드화되고 기호화된 장에서 솟아오르는 것. 사건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수많은 계열들의 장에서 어떤 자리, 위치에서 솟아오르는 것. 자리, 위치란 사건으로서 자연/존재로부터 솟아오른 하나의 사건으로 파악되는 것.⁹⁾

8) 들뢰즈(1990), 149쪽.

사건이 계열화된다는 것은 실제적 관계일 경우 의미가 현실적으로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건이 외부 세계와 연관되어 언어로 분석되는 관계이다. 하지만 그것이 상상적인 관계의 경우 사건은 독자를 상상하게 만든다. 이것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어서 이미지와 환상을 포함하는 언어 이전의 단계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상징적 관계일 경우 사건은 균열과 일탈에 의해 변형의 소재가 된다.¹⁰⁾ 여기에는 사건의 주체가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자신을 주체로 구성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과정이 포함된다. 결국 사건이 발생하면 계열화된 사건의 특이성은 논리적인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특이한 구조는 우리의 의식구조가 아닌 가능 세계의 논리적 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3. 철학과 문학에서의 가능 세계

철학에서는 가능 세계를 설명하는 도구로 양상논리가 이용된다. 기존의 참과 거짓이라는 이치논리에 기반 한 명제논리에 필연성(필연과 우연)과 가능성(가능과 불가능)을 추가하여 다치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양상논리이다. 미래에 관한 모든 명제를 가능 또는 불가능의 명제로 이해하면 이러한 명제들은 논리적으로 필연적 진리와 우연적 진리를 구분하는 양상논리의 형태를 가진다. 양상논리는 형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양상논리의 해석에 철학적 난점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양상논리는 새로운 양상 어휘, 형성 규칙 그리고 공리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구문론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의미론적 해석이 주어지지 않았다. 철학에서는 비 양상 문장논리에 대한 진리목록인 의미론과 형식적 모델을 고

9) 이정우(1999), 116쪽 요약.

10) 라캉의 거울 단계 이론에 따르면 상상계는 무의식적인 이미지와 환상을 말하는 것이고 예고와 동일시되는 영역이다. 상징계는 언어의 영역이 상징화되는 것으로 주체가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실재계는 언어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분석하고 경험하는 외부 영역을 말한다.

안하는데 이것이 가능 세계에 대한 답론이다.¹¹⁾

양상논리는 수학의 집합과 같은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형식과 의미가 집합적 관계를 가지면 그러한 관계는 함수처럼 순서쌍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공리 A가 체계 S에서 타당하다는 것은 공리 A가 양화 모델구조 K에 존재하는 어떤 가능 세계 W에서도 참이라는 정의가 있어야만 한다. 집합론은 그 타당성이 정의되고 동시에 양상체계의 무모순성도 정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양상 체계의 성립이 가능하지만 필연성과 가능성의 개념을 추론할 수 있는 양상적 의미의 추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양상추론은 가능 세계, 사실 세계, 그리고 접근가능성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형식과 의미론에서 가능 세계가 어떤 가능 세계에서 참이면 ‘필연적으로’ 혹은 ‘가능적으로’란 말과 대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철학에서 가능 세계는 비 순수 의미론에 위치한다. 하지만 순수 의미론으로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필요성의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어떤 형식 체계가 양상논리 혹은 명제논리로 정당화를 주장할 때, 집합적 구조와 필연성 그리고 우연성의 개념을 연결시켜주는 형식을 말한다. 문학에서 소설의 표면구조를 형이상학의 표면구조라고 한다면 철학에서 그것은 소박한 형이상학에 해당한다. 결국 가능 세계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방문자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능 세계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방문자는 가능 세계를 ‘참이다’ 혹은 ‘거짓이다’라는 단순한 진리치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능 세계의 무모순성을 생각해 볼 때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가능 세계들이라고 한다면 소설에서의 가능 세계에 대한 참인 서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학에서는 ‘가능한’이란 말이 긍정적인 방식으

11) N, 하르트만은 『존재론의 새로운 길』에서 양상의 범주는 공간, 시간, 과정, 심리작용, 실재성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한다. 모든 현실적인 것은 가능태의 현실로 나타나고 모든 존재자는 이러한 가능태에 의해 규정되는 관계로 실재성의 개념이 확장되기 때문에 조건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새로운 개념을 끌어들이는 필요가 있다.

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형이상학의 실재론적 의미에서 가능 세계의 설명은 악순환에 빠진다. 즉 가능 세계를 직관에 의해 설명한다면 그것은 비 순수 의미론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인식론적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문학에서는 가능 세계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가능 세계의 존재여부를 설명한다. 수잔 하크는 『논리철학』에서 이러한 의혹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형식논리 체계에 나오는 구문론적 작용요인들은 자연 언어적으로도 읽히고 또 그에 대한 형식 의미론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형식 의미론은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해석이 다시 형식적인 해석이 되면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비형식적인 해석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비형식적 해석은 그 체계의 작용요인들에 대한 자연 언어적 해석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든가 아니든가 둘 중의 하나이다. 만일 아니라면 비형식적 해석이 다소 부적합하다고 여겨질 것이다.¹²⁾

가능 세계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 된 접근방법은 가능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무모순적인 문장들의 집합에 관한 이야기와 동일시하는 언어적 접근방법, 가능 세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계를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와 동일시하는 개념주의의 접근방법, 가능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의 언어 그리고 사유와는 완전히 독립된 실제로 있는 추상적인 실재에 관한 이야기와 동일시하는 실재론적 접근방법 그리고 통세계적 동일성으로서 가능성 개체에 의한 접근방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 세계의 접근 방법이 무엇이건 간에 문학과 철학에서의 가능 세계는 상이하게 확인되어진다. 더욱이 라이프니츠의 동일성의 원리처럼 어떤 두 개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경우 우선 어떤 개체가 가진 속성들 중에 개체가 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속성이 존재하고 그 속성은

12) 수잔 하크(1986), 247쪽.

다른 가능 세계의 개체의 속성으로 동일할 경우 그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동일성의 통시간적 기준이 무엇인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문제의 핵심을 술어에서 이름으로 전환시키는 고정 지시어로 가능 세계에 동일한 개체를 지시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다른 가능 세계의 누군가가 물음에 답할 때 바로 그 누군가가 개체가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문학에서는 가능 세계의 개념을 의미론의 측면에서 이론으로 응용한다. 문학이론은 어떻게 가능 세계의 개념이 문학의 영역으로 이동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관찰하면서 인접학문으로의 접근가능성을 탐구한다. 문학에서 다루는 가능 세계는 허구의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에서 논하는 가능 세계의 논리가 무시될 수 있다. 문학적 논리의 가능 세계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부재와 침묵의 이데올로기가 있지만 어떻게 가능 세계를 인식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한다. 만약 문학이론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철학의 가능 세계와 허구의 세계는 양립할 수 없을 것이다. 철학은 가능 세계를 이론적 틀로 보는 반면 문학은 가능 세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철학은 가능 세계의 의미론을 통해 전통적인 논리의 영역에서 소설을 배제시키지만 문학은 가능 세계의 틀을 비실제적인 세상으로 응용한다.

의미론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가능 세계와 양상논리의 해석은 개념적 차이를 가진다. 양상논리로 볼 때 가능 세계는 제한된 추상적 범주나 대체물에 불과하지만 소설에서의 가능 세계는 구체적이고 예술적인 현상으로 인식한다. 문학이론가들은 가능 세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질적인 분야에 대한 접근가능성으로 생각한다. 이 경우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에는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허구의 세상이다. 철학에서의 가능 세계는 허구의 세상이지만 문학에서의 가능 세계는 실제 세상에 대한 유추, 일탈, 혹은 모순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들뢰즈는 *The Logic of Sense*에서 가능 세계의 구조를 타자와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구조는 무엇인가? 그것은 가능의 구조이다. 겁먹은 얼굴은 내가 보지 못한 공포가 들어있는 세계이다. 그 세계에서 공포는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이다. 가능은 실존하지 않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추상적 범주가 아니다. 오직 표현된 가능 세계만 존재한다. 그것은 표현된 바깥 세상에서 존재하지 못한다. 공포에 질린 얼굴과 무서운 것은 다르다. 공포에 질린 얼굴은 공포를 만드는 그것과 다르다. 그것은 표현하는 것 속에서 표현된 것을 집어넣는 일종의 뒤틀림이다. 공포를 만드는 존재는 일종의 타자의 의미를 함축하는 어떤 것이다. 타자가 표현하는 실재를 포착하면 나도 타자를 펼칠 뿐이다. 그는 상응하는 가능 세계를 현실화시킨다. 타자는 이미 그가 내포하고 있는 가능에 어떤 실재성을 부여한다. 타자란 내포된 가능의 실존이다. 언어는 가능의 실재이다. 자아는 가능의 펼쳐짐과 현실적인 것의 실현 과정이다.¹³⁾

가능 세계에 대한 문학적 해석은 소설의 존재론에서 생성된다. 그러나 문학에서 허구적 사실은 실질적으로 발생될 수 있거나 발생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엇이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소설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한다. 허구의 세계에서 불가능성의 발생은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글쓰기처럼 문학의 여러 학파에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했다. 불가능성이란 문학이론가에게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가능 세계의 틀은 각기 다른 맥락에서 다른 형식을 부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론에 가능 세계의 문제가 공헌한 부분은 실제적인 영역으로서 사건의 상황을 재현하기 때문에 불가능성은 각기 다른 영역과 관련짓는 중간적인 매개물의 역할을 한다. 결국 허구의 세계는 가능하면서 불가능할 수 있다. 가능 세계에 대한 논리적 이용과 문학적 이용의 차이점은 통세계의 동일성과 접근가능성을 이해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Possible worlds in Literary Theory*에서 로넨(Ruth Ronen)은 접근가능성과 관련해서 가능 세계의 의미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영역의 존재가 수반되지 않는 것을 중요한 차이점으로 인식한다.¹⁴⁾ 반대로 접근

13) 들뢰즈(1990), 307쪽.

14) 로넨(1994), 64쪽.

가능성에 대한 문학적 해석에는 세상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와 소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현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능 세계는 학문적 제휴로서의 이용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가능 세계의 틀은 허구의 정의를 토대로 철학적 영향을 설명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지시 관계, 형이상학에서의 존재론, 그리고 재현의 문제를 문학적 이론으로 재정립하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허구의 세계는 가능의 세계가 아니지만 소설이 투사하거나 구성하는 세상을 통해 반영하고 논증하는 특정한 관계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소설도 논리적 규칙과 분리된 장치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치는 일단 문화적 범주가 고정되면 허구인 텍스트의 문화적 범주와 텍스트의 독서가 독특한 평형을 이룬다. 결국 문학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가능 세계에 들어 있는 광범위한 목록이다. 움베르트 에코는 『소설 속의 독자』에서 가능 세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므로 텍스트 기호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능 세계란 텅 빈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가득 찬 세계 또는 관련 문헌들의 표현에 의하면 갖추어진 세계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체들의 명단을 갖지 않는 추상적 유형의 가능 세계들이 아니라 반대로 개체들과 특성을 알아야 하는 충만한 세계들에 대해 말해야 한다.¹⁵⁾

가능 세계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은유로 사용하거나 형이상학적 방향의 양상논리에서 활용될 때 비판받는다. ‘가능 세계를 지나치게 은유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비판은 명제 P가 모든 가능 세계들에서 진실일 때 필수적이라고 말하거나 동일한 필수 명제들이 두 세계 안에서 타당할 때 두 세계는 상호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원칙 오류’라고 에코는 말한다.¹⁶⁾ 이와 같이 가능 세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적인 유형을 갖는 특

15) 에코(1996), 188쪽.

16) 에코(1996), 189쪽

이성 때문에 실제적 개념은 가능 세계를 실제적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무엇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이것은 하나의 대안이며 다른 세계들 중의 하나의 세계라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가능한 것 자체가 사실이라는 명제는 구조적 가능성을 가지지만 양상 논리에서 가능 세계는 개별 세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문학에서는 가능 세계가 현실 세계가 아니라고 변명한다. 텍스트에는 충분한 가능 세계의 범주가 들어있다. 그러한 범주들은 구체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문학적 재현으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텍스트에 나오는 가능 세계의 이론은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특징들, 대안들, 접근 가능성 같은 개념을 재 정의하는 방식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적 입장에서 볼 때 가능 세계는 문화적 구성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가능 세계는 합리적 실제 혹은 구성물로서 가능한 것들에 대한 접근일 것이다. 가능 세계는 우리가 언제나 항상 의존하는 모태를 제시한다. 소설에서 가능 세계란 현실 세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가능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사실로서 예코의 표현처럼 백과사전의 지식에 의존하는 무엇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¹⁷⁾

4. 상상력과 유토피아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상력을 이미지를 형성하는 능력으로 생각한다. 상상력은 인간의 지각작용에 의해 받아들여진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받아들인 이미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미지들을 변화시킨다. 이미지들의 변화나 결합이 없다면 상상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상상하는 행위 또한 생각할 수 없다. 상상력은 이미지에 들어 있는 부재나 침묵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건의 우연성과

17) 에코(1996), 61쪽.

의미를 풍부하게 만든다.

상상력으로 얻어진 이미지는 상상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상상에 의한 가치는 인간의 경험을 의미하며 인간의 심리적 특수성을 펼쳐 보인다. 상상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실존 그 자체이며 문학적 상상력이 언어에 연결되면 인간의 정신은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현실에서 벗어나 가능 세계의 담론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다시 말해 상상은 이미지를 뛰어넘어 인간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삶을 실현하는 유토피아로 인도하며 그 이상의 의미를 제공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상상은 내밀한 역할을 수행하며 말과 언어표현, 그리고 문학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게 만든다.

이미지는 우리의 상상력을 촉발시키며 언어가 가지는 타자의 문제, 사건의 의미, 은유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상상력은 물질적인 질과 양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부재와 침묵을 통해 비약하게 한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공기와 꿈』에서 ‘진정한 시인은 상상력이 하나의 여행이기를 원한다. 그러니 시인은 자기 나름대로 우리에게 여행에 초대를 해야 하는 것이다.’¹⁸⁾라고 말한다. 시인은 사라지기 쉬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변화를 통해 상상하게 만든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공기와 꿈』에서 상상력의 가동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무리 그것이 현실적인 생성을 묘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상력의 참된 여행이란 상상 세계로의 여행, 다름 아닌 상상 영역이라는 그 고장을 향한 여행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로서 대번에 천국이나 지옥, 또는 아틀란티스나 테바이드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상향의 하나를 뜻하지 않는다.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그곳으로의 여정인데 정작 사람들이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것은 그곳에서의 체류이다. 여기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현실 속에 내재하는 상상 세계이며 현실에서 상상 세계에 이르는 지속적인 궤도이다.¹⁹⁾

18) 바슐라르(1997), 17쪽.

19) 바슐라르(1997), 19쪽.

이것은 상상적인 것이 현실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현실과 상상이 단절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상상의 세계로 여행하는 것은 무한 세계로의 여행이며 인간의 사유를 넘어 다른 초월적 이미지를 작동시키게 만든다. 상상력은 순수사건을 제공하며 유토피아의 세계를 추구하고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현실 세계에 보여준다. 문학 이미지가 독창적이듯이 상상력은 새로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언어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유토피아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토머스 모어 이후로 유토피아 사상가들이 제시한 유토피아는 그것이 섬이건 이름 없는 공간이건 지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방문자를 유토피아로 추방했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연결되는 경로가 존재하며 이러한 경로들은 긍정적 유토피아 혹은 부정적 유토피아로 나타난다. 그리고 낯선 세계의 방문자는 외부의 세계들을 독자에게 소개한다.

그러므로 유토피아에서는 목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토피아의 방문자는 낯선 세계를 보고 당황한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세계의 문화와 유토피아를 대비시킨다. 그는 신비로운 주민들의 환경과 풍습에 혼란스러워 하지만 곧 그러한 감정은 호기심으로 바뀐다. 방문자는 주민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징들을 비교하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상 국가 주민들은 현실 사회의 악들을 표면으로 떠오르게 만든다. 올렌 딜라스와 로세리외는 『미래의 기억』에서 유토피아에서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갈등의 근원이 되는 정치놀음은 사라지고 그 대신 빈틈없는 사회적 통제의 압력 하에 생산과 분배를 집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생산물을 평등하게 분배하고 아무런 개인적인 특권 없이 유토피아 시민들이 순번으로 관리 직책을 맡게 하는 것은 특권계급의 무기로 간주되는 정치적 결정기관이 사라짐을 의미하며 또 피아간의 대립으로 귀결되는 정치의 내용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경제적 정치적 경쟁 및 애정상의 경쟁이 근원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평화로운 사회의 전제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열정적인 감정의 폭발이

없기 때문이다. 감정적인 것을 포함하여 모든 개인적 행위는 간단하고 단순해서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집단적 규율에 의해 억제된다.²⁰⁾

유토피아 소설은 꿈꾸는 공간에 대한 거부, 그리고 증오의 대상이 된 현실 세계를 용서하려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 낯선 세계의 방문자는 체계적인 조사와 질문 혹은 우연적인 만남 그리고 꿈의 형태로 유토피아의 세계를 보여준다. 방문자는 매혹적인 곳을 보여주면서 현실과 허구의 이미지를 통해 기존의 체제를 악으로 낙인찍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리고 현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다녀와 행복해 하는 가상의 여행자를 내세워 사회를 비난하고 종교적 토대를 무너뜨린다.

유토피아는 이데올로기적 절대성과 종교적 약속의 영역을 버리고 인터넷이나 웹에 존재하는 가상공간의 영역에서 새로운 전망을 찾으려 한다. 유토피아는 토머스 모어가 처음으로 제시한 원칙, 즉 아무데도 없는 장소로의 여행이라는 원칙으로 언제나 되돌아가는 것이다. 유토피아는 과학적 합리화로 인식의 문제에서 벗어나 그곳에서의 희망의 원리만 간직하고 있다. 다만 악의 원인과 이상 사회로의 이행 수단에 대한 이론화를 통해 약속의 내용과 현실 사이에서 접근가능하다는 사실만이 반복될 뿐이다.

결론적으로 유토피아 사상이 인류 역사의 토대에 뿌리를 내린 것이라 해도 유토피아란 용어는 일탈, 에피소드, 실패한 실험, 현실과 반대되는 이상세계, 부정과 긍정, 구원, 환상, 개혁, 혁명, 만인의 행복, 행동이 뒷받침이 안 된 유토피아, 허구의 도구, 미래에 대한 비전의 합리화, 생산, 교육, 교환, 여가의 영역, 가능 세계, 창안된 세계를 만들어낸다. 유토피아는 허구와 현실을 문학적으로 결합한 서양만의 독특한 특징이며 근대 사회의 합리적 비판 능력과 좋은 사회를 낳을 수 있는 근대 사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 유토피아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건, 합리적 비판, 허구의 세계는 리얼리즘이나 논증적 변증법의 결합과 철학

20) 올렌 딜라스와 로세리의(2007), 38쪽.

적 사유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으로 완성된 글을 유기적 혹은 총체성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나오는 말

유토피아는 세상의 어느 곳에도 없는 가공의 장소이다. 유토피아 소설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세계로 인도하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방문한 여행자의 소개로 가능 세계와 미래로 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소설은 동시대의 사건을 허구의 이야기로 만드는 작가의 창조성과 천재성에 의지한다. 그러나 소설이 출판된 후에도 개인주의와 유토피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이 변형되어 반복되어 왔다. 소설 속에 나타나는 사건은 모순, 침묵 그리고 부재의 문제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소설의 발생과 연관시키는 것은 소설이 근대사상의 특징적인 방향을 반영하면서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허구의 내용으로 보여주지만 사건이 일어나는 유토피아의 가능 세계에 대한 해석에는 철학과 문학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18세기 소설의 발생을 유토피아의 일탈, 상상 그리고 리얼리즘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등장인물이 당시의 관습과 전통에서 일탈되는 행동과 사건을 독자에게 제공하는데 근거를 둔다. 일반적으로 리얼리즘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사건을 통해 해석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의식은 균열상태와 단절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의해 형상화되기 때문에 독자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못하고 주인공의 의식상태를 현실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건은 잠재적으로 어떤 가능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본 논문에서는 사건의 특이성과 유토피아에서의 일탈의 문제와 연관시켰다.

사건이란 소설 속의 물리적 변화가 문화의 세계로 들어와 현실적인 문제와 가상의 현실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경우 가능 세계의 문제

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이 양상 논리이다. 양상논리는 형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이나 입장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만들어 논리적 모순을 설명하는 도구적 개념이다. 철학에서는 가능 세계를 순수 의미론으로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을 정당화하는 체계를 요구한다. 반대로 문학에서는 가능 세계의 개념을 의미론적 측면에서 문학이론에 응용한다.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문학에서의 가능 세계와 유토피아의 일탈의 문제로 가능한 것 자체가 텍스트에는 가능 세계의 범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철학에서 가능 세계는 문학에서 논하는 가능 세계와는 양립 가능하지 않다. 문학은 가능 세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소설의 표면구조는 가능 세계가 존재하게 구조를 가진다. 문학은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가능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대안이나 대체물로 이용한다. 가능 세계가 소설에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도 텍스트 속에는 다양한 가능 세계의 범주가 존재한다. 그리고 문학이론은 가능 세계의 이론들이 본질적인 특징이나 접근 가능한 개념을 정의하고 연구하여 소설의 일탈, 다양한 실험, 현실과 반대되는 이상주의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학에서 다루는 사건은 어떤 구조를 가지는데 이것은 타자의 얼굴처럼 실존하지 않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범주가 아니라 표현된 가능 세계에 존재하는 가능 세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상상력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에 토대를 둔 설명이다. 그러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에는 부재나 침묵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건의 우연성과 가능성의 이미지는 더욱 문학적으로 풍부해 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상적인 것이 현실에 내재해 있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현실과 상상이 단절될 수 없다는 측면도 조심스럽게 설명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인문학의 영역에 들어오면 가공의 세계건 아무 곳에도 없는 세계건 어디에나 존재하는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이정우, 『시플라크르의 시대: 들뢰즈와 사건의 철학』, 서울: 거름, 1999.
- 가스통 바슐라르, 정영란 옮김, 『공기와 꿈: 운동에 관한 상상력 연구』, 서울: 민음사, 1997.
- 브루스 오운, 김한라 옮김. 『형이상학』, 서울: 서광사, 1994.
- 로버트 노직, 남경희 옮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3.
- 루카치, 게오르크, 홍승용 옮김,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서울: 실천문학사, 1985.
- 루카치, 게오르크, 차봉희 편저, 『루카치의 변증-유물론적 문학이론』, 서울: 한마당, 1991.
- 루카치, 게오르크, 심성완 역, 『루카치 소설의 이론』, 서울: 심설당, 1993.
- 수잔 하크, 김효명 옮김, 『논리철학』, 서울: 종로서적, 1986.
- 움베르토 에코, 김운찬 옮김. 『소설 속의 독자』, 서울: 열린책들, 1996.
- 올렌 탈라스-로세리, 김휘석 옮김. 『미래의 기억: 유토피아』, 서울: 서해문집, 2007.
- 테리 이글튼, 이경덕 옮김, 『문학비평: 반영이론과 생산이론』, 서울: 까치, 1991.
- 햄린, D. W, 이태하 옮김, 『인식론의 역사』, 서울: 소나무, 1987.
- Bloom, Harold, *The Anxiety of Influence: A Theory of Poet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Christine Rees, *Utopian Imagination and Eighteenth-Century Fiction*, New York: Longman, 1996.
- Davis, J. C, *Utopia and the ideal Society*, New York: Cambridge UP, 1981.
- Deleuze, Gilles, *The Logic of Sense*, New York: Columbia UP, 1990
- Eco, Umberto, *The Role of The Reader: Explorations in the Semiotics of*

- Tex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 Forster. E. M, *Aspects of the Novel*, Cambridge: Penguin Books, 1977.
- Lamarque, Peter and Olsen S, Haugom, *The Truth Fiction and Literature*, Oxford: Clarendon Press, 1966.
- Leibniz, G. W, *Leibniz-Clarke Correspondence*, Alexander, H. G. e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56.
- Loux, J. Michael, ed, *The Possible and the Actual: Readings in the Metaphysics of Modality*,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9.
- Pierre Macherey, *A Theory of Literary Production*, London: Routledge, 1980.
- Ronen, Ruth, *Possible worlds in Literary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Tooley Michale, ed, *Particulars, Actuality, and Identity over tim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99.
- Tooley Michale, ed, *Necessity and Possibility: The Metaphysics of Modality*,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99.
- Wallerstein, Immanuel, *Utopistics: Or Historical Choic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The New Press, 1998.
- Watt, Ian, *The Rise of the Novel: Studies in Defoe, Richardson, and Fielding*, New York: Penguin Books, 1957.

The Humanist imagination on Utopia and Possible worlds

Chung Ik Soon

This thesis studies the imagination and deviation from the accident in the realism and its origin of 18th century novel. The Utopia is the place of no where, just as fictional place drawing in the possible worlds. But there are ways to utopian worlds for the readers led by the visitor who guides ideal world on what possible worlds and future paths are. Novels are in the 18th century initially depended on the author's creative power and intelligence to build up an event of fictional story. When they made publication of new story which involved lots of silence and absence of the text, another writers were engaged in writing deviated story to modify and repeat the problem in the text that did not show the truth of the accident.

An accident is the conflict between actual problem and imagined reality when the physical changes come into the culture of the world in the novel. In the case, to solve the problem of possible worlds needs the logic modality because all texts project a system of worlds, modal universe on how the difference between fiction and nonfiction can be characterized in the framework of possible worlds. Possible worlds and individuals are discursively in philosophy vogue nowadays. While philosophers have invoked the concepts of story to explain what a possible worlds is, literary theorists have developed a textual semantics based on the idea that the semantic domain projected by the literary text is a non-actual possible world of an alternative possible world.

This is the main idea in this thesis that we have to understand what the real world and possible worlds are in the field of philosophical and literary works.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utopian worlds are incompatible when they try to meet the demand and desire between two studies. But in the field of literary works writers and critics have studied the object of

철학탐구 제23집

possible worlds in the surface of the accident as a real structure existing in the fictional world. They use the possible worlds as an alternative or media to know real world. Therefore,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ways to access to the actual world studying the deviation, experiment, the opposition of the two worlds for the vision of future world. Utopian imagination and deviation in the text are the problem of ubiquitous existence out of possible worlds.

Key Words: modality, accident, deviation, imagination, possible worlds, utopia, realism, image

정익순 e-mail: iksoon3@hanmail.net